

고운(顧雲)이 최치원에게 준 송별시

「고운편」에 대한 진위 고증

- 「고운편」과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에 대한 한중 연구사를 겸하여 -

이 황 진

(중국광서사범대학교)

1. 서론

최치원이 당나라를 떠날 때 고운(顧雲)이 석별의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어주었다고 하는 송별시 두 편이 한국 문헌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다.¹⁾ 그 하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권46 열전 “최치원조”(이후 「최치원전」이라 칭함)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또 같은 해에 과거에 함께 급제한 고운(顧雲)과 친하게 지냈는데, 귀

1) 고운(顧雲)은 최치원의 호인 고운(孤雲)과 음이 같으므로 독자의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고에서 참고한 논저 가운데 중국어로 된 논저의 경우에는 저자 옆에 (中)이라 표기할 것이며, 인용하는 내용은 필자가 번역한 후 인용한다.

주제어: 최치원, 재입당 시기, 고운의 「고운편」, 우무릉의 「고운」, 진위 고증
崔致遠, 再入唐時間, 顧雲 《孤雲篇》, 于武陵 《孤雲》, 眞僞考辨

국하러 하자 그가 시를 지어 송별하였으니, 대략 이러하였다. “내 들으니 바다에 금자라가 셋이 있어, 금자라 머리에 이고 있는 산 높고도 높구나, 산 위에는 구슬 궁궐 자개 대궐 황금의 전각이요, 산 아래에는 천리만리의 넓은 파도라네, 그 곁에 한 점 계림이 푸르네, 금오산 정기로 뛰어한 인물을 낳게 했네, 열두 살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그 문장 중국을 감동시켰네! 열여덟 살에 글씨를 하는 곳에 나아가, 한 화살로 금문책을 쏘아 뚫었네!”²⁾

그리고 또 다른 한 편의 송별시는 이인로의 『파한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2) 고향에 돌아옴에 미처 과거에 함께 급제한 고운(顧雲)이 「고운편(孤雲篇)」을 지어 보내어 말했다.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떠돌아, 달을 짝하여 인간에 이르렀네. 배회하며 가히 머물 곳이 없어, 막막하게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네!” 공이 또한 자술하여 말했다. “무협의 겹쳐진 봉우리의 나이(12세)에 미미한 몸으로 중화에 들어가고, 은하수가 펼쳐진 별자리의 나이(28세)에 비단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왔다.”³⁾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수록된 (1)의 송별시를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 권22 「당서불립최치원열전의(唐書不立崔致遠列傳議)」에서 “동년 고운이 「유선가」를 최치원에게 주었다(同年顧雲贈儒仙歌)”라며 「유선가」라 칭하였는데 현재 학계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칭하고 있다. 그리

2) 又與同年顧雲友善，將歸顧雲以詩送別，略曰：“我聞海上三金龜，金龜頭戴山高。山之上兮，珠宮貝闕黃金殿。山之下兮，千里萬里之洪壽。傍邊一點雞林碧，鰲山孕秀生奇特。十二乘船渡海來，文章感動。十八橫行戰詞苑，一箭射破金門策。”(金富軾著，金鍾權譯，『三國史記』下，明文堂，1988, p. 534)

3) 及還鄉同年顧雲賦孤雲篇以送之云：“因風離海上，伴月到人間。徘徊不可住，冥冥又東還。”公亦自敘云：“巫峽重峯之歲，絲入中華，銀河列宿之年，錦還故國。”(李仁老，『破閑集』卷中23則，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편, 『高麗明顯集』第二冊, 1986, p. 95)

고 『파한집』에 수록된 (2)의 송별시는 이인로의 글에 의거해 「고운편」이라 칭하고 있다. 이 두 편은 시는 당조(唐朝)부터 청조(淸朝)에 이르기까지 『전당시(全唐詩)』를 비롯한 중국의 고대 문헌 그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한국 문헌을 통해서만 전해져 왔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두 편은 송별시의 진위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으며, 중국에서도 역시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만 학자 사해평(謝海平)은 (1)의 제목을 「유선가를 신라로 돌아가는 최치원에게 줌(儒仙歌送崔致遠歸新羅)」이라 달고 『당대 시인과 재당 외국 문인의 교류(唐代詩人與在華外國人之文字交)』에 수록하였으며,⁴⁾ 중국 학자 위옥승(韋旭升)은 (2)를 「고운편」이란 제목으로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에 수록하였고,⁵⁾ 진상군(陳尙君)은 이 둘을 「신라로 돌아가는 최치원에는 줌(送崔致遠西游將還)」과 「고운편」이라는 제목으로 『전당시보편(全唐詩補編)』 권 34에 수록하였다.⁶⁾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에서도 이 시들을 고운의 시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편은 시는 최치원의 생애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진위 여부를 최대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즉, 「유선가」는 최치원에 대한 최초의 전기인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삽입되어 최치원이 18세에 과거 급제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데, 이는 곧 최치원이 857년에 출생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적잖은 연구자들이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 그 시기를 증명함에 있어 「고운편」을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계에서는 이 시들의 진위여부에 대한 고민이나 고증도 없이, 그냥 고운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필자는 이 두 편은 시 중 적어도 「고운편」은 고운의 작

4) 謝海平(中), 『唐代詩人與在華外國人之文字交』, (臺灣) 文史哲出版社, 1981, p. 155.

5) 韋旭升(中), 『朝鮮文學史』, 北京大學出版社, 1986, p. 170.

6) 陳尙君輯校(中), 『全唐詩補編』中冊, 中華書局, 1992, p. 1192.

품이 아니며, 심지어 이러한 송별시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었다고 생각하기에, 본고에서 이를 고증하고자 한다.

고증에 앞서 고운이란 인물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 고운이 어떠한 인물이며 최치원과 는 어떠한 교분을 나누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간략히 소개하기로 하겠다.⁷⁾

고운(顧雲)의 자(字)는 수상(垂象), 사룡(士龍)이며, 지주(池州, 지금의安徽省 貴池縣) 사람이다. 당의종(唐宜宗) 대중(大中) 5년(851)에 염상(鹽商)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당소종(唐昭宗) 건녕(乾寧) 원년(894)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시문에 정통하였고 수많은 저술을 남긴 만당(晩唐) 시기의 저명한 문인이다. 하지만 그의 저술은 대부분 일실되어, 『전당시(全唐詩)』 권637에 시 1권(8수), 『전당문(全唐文)』 권815에 23편의 문장이 수록되어 전하고 있을 뿐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서송(徐松)의 『등과기고(登科記考)』 권23⁸⁾ 등에 의하면 최치원과 고운은 함통15년(건부 원년, 874)에 함께 과거에 급제한 동년(同年)⁹⁾이다. 또한 이 둘은 회남(淮南) 고변막부(高駢幕府)에서 함께 종사한 동료이자 막우(幕友)이기도 하다. 고운과 최치원의 교류(交遊)는 『계원필경집』과 한국 사적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7) 顧雲과 최치원의 교류(交遊) 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중렬, 『최치원 문학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pp. 41~45 ; 박병선, 「당대 한중 문인의 교류에 관한 연구 - 동국문종 최치원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46호, 2003, pp. 454-458 ; 이구의, 『최고운 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pp. 54-58 ; 党銀平(中), 『唐與新羅文化關係研究』, 中華書局, 2007, pp.101-104 ; 方曉偉(中), 『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 廣陵書社, 2007, pp. 128-131 ; 姜昌求(中), 『新羅人與唐代人的贈詩研究』, 南京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8, pp. 89-92 등.

8) 徐松撰, 『登科記考』 卷23, 中華書局, 1984, pp. 867-868.

9) 여기서의 ‘同年’은 나이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2. 「고운편」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분석 고찰

「고운편(孤雲篇)」

因風離海上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떠돌아,
伴月到人間 달을 동반하여 인간에 이르렀네.
徘徊不可住 배회하며 가히 머물 곳이 없어,
漠漠又東還 막막하게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네!

고운이 「고운편」의 작자임을 인정한 후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 관련 지어 이를 분석한 김중렬의 견해가 이 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김중렬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운(孤雲)을 신선으로 비유한 것은 「유선가」와 상통하는 기법으로 고운(顧雲)의 작이 분명하다. 기구는 처음 신선국 신라로 귀국할 때의 정경이요, 승구는 다시 신라에서 인간의 세계인 당으로 돌아온 것을 이룸이며, 전구는 당시 기울어져 가는 당나라의 정국이며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막주(幕主) 고변(高駘)의 몰락으로 인하여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한 난감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절구에서는 다시 이별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정경이 그려져 있다. ‘막막(漠漠)’이라는 두 자에서 이제는 다시 만날 기약 없는 이별임이 분명하고, ‘우동환(又東還)’에서 두 번째 신라로 귀국하는 시의(詩意)가 확실하다. 이와 같이 이 시는 고운(孤雲)이 두 번째로 당에 들어갔다가 귀국할 때 쓰여졌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삼국사기』 최치원조에 ‘그 후 치원은 또한 사신으로 당나라에 갔으나, 언제 갔는지는 알 수 없다(其後致遠亦嘗奉使入唐, 但不知其歲月耳)’라는 기록과 부합하며 이를 증명해 주는 한 편의 좋은 예(好例)이다. 모든 것이 인멸되어 알 길 없는 상황 속에서 고운(孤雲) 행적의 일부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고운(顧雲)은 건녕 원년(894)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고운(孤雲)은 38세였다. 그러므로 고운(孤雲)이 다시 당에 왕복한 것은 그 이전이어야 옳을 것이다.¹⁰⁾

「고운편」을 최치원의 생애와 밀접하게 연관 지어 해석한 김중렬의 해석은 매우 탁월해 보인다. 김중렬의 분석과 해석처럼 「고운편」의 시어와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를 최치원의 첫 번째 귀국(884년)보다는 두 번째 귀국과 연관 지어 해석하고 감상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기는 하다. 이재운과¹¹⁾ 강명구(姜昌求)¹²⁾ 역시 이 시를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그리고 최영성은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를 지어 준 고운이 당소종 건녕 원년(894)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사신으로 간 연대가 적어도 894년 이전임을 알 수 있고, 또 최치원이 진성여왕 8년(894) 2월에는 시무책을 임금에게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893년 연말쯤에 하정사로 당나라에 들어가 그 이듬해 돌아왔음이 거의 분명하다”¹³⁾며 당시 최치원의 행적과 연관시키고 있다.

방효위(方曉偉) 역시 「고운편」을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 관련짓고 있지만, 그는 기타 연구자들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보통 최치원과 고운은 당에 있을 때 절친한 친구였으며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방효위는 “최치원은 881년 「격황소서(檄黃巢書)」를 통해 천하에 문명을 떨치게 되었지만 도리어 막부의 동료들로부터 배척과 차별을 받았는데, 그와 반대로 고운은 882년 「대고변상희중주(代高駢上僖宗奏)」을 통해 또 한 번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처지로 인해 중화(中和) 2년(882) 이후, 최치원과 고운은 차츰 사이가 소원해졌으며, 이러한 관계는 최치원이 귀국하던

-
- 10) 김중렬, 『최치원 문학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pp. 44-45.
 11) 이재운, 『고운 최치원의 사상과 역사인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 51 ; 이재운, 「고운의 생애와 정치활동」, 한국사학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편,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연구』, 주류성, 2001, pp. 72-73.
 12) 姜昌求(中), 『新羅人與唐代人的贈詩研究』, 南京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8, pp. 90-91.
 13) 최영성, 「최치원 사상 형성의 역정에 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10집, 1998, pp. 231-233.

88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하기에 『계원필경집』 권20에 그렇게 많은 송별시를 수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고운과 나는 송별시가 없는 것¹⁴⁾ 이라며 그들의 사이가 한 때 서먹해지고 멀어진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후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최치원이 재입당 하였을 때에는 이미 예전의 그런 안 좋았던 기억을 떨쳐버렸기에 옛 친구를 만난 반가움과 다시 헤어져야만 하는 아쉬움을 「고운편」에 담아낸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¹⁵⁾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를 893년이 아닌 894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영성의 견해와 다르긴 하지만, 고운 생전이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하겠다.

이처럼 김종렬을 비롯한 적잖은 연구자들이 「고운편」을 최치원이 귀국할 때 고운이 지어준 송별시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최치원이 884년 귀국할 때가 아니라 하정사 신분으로 재입당 했던 사실과 관련지으며, 그 시기를 확인하는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고운편」의 작자를 고운이라 확신한 후 이를 통해 최치원의 재입당사실과 그 시기를 유추한 연구자들의 논리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만일 최치원이 하정사로 재입당 했던 시기가 고운이 사망(894년)한 후라면 이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 되며, 동시에 이 시는 고운의 시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박병선, 이구의, 당은평(党銀平) 등 여러 연구자들도 「고운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지 고운이 최치원에게 준 이러한 송별시가 있다는 정도의 소개에 그치며 별다른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는 상관없이 최치원이 884년 귀국할 당시 고운이 「고운편」을 지어준 것이라고 확신하는 논자도 있는데 이중문이 그러하다. 그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方曉偉(中), 『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 廣陵書社, 2007, pp. 130-131 ; p. 228.

15) 위의 책, p. 131.

문맥상의 흐름을 찬찬히 살펴보면 고운(孤雲)은 분명히 고변의 막부에서 활약하다가 귀국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고운편」의 창작 시기는 최치원이 28세 때임이 분명하며, 「고운편」의 바로 뒤에 첨부되어 있는 최치원의 「자서(自序)」¹⁶⁾가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이다. 최치원의 자서는 문맥으로 보아 「고운편」에 대한 자서로 보이지만, 설사 그것이 「고운편」에 대한 자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록의 전체적인 맥락은 28세에 그가 귀국하는 상황이 확실하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¹⁷⁾

윗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종문은 「고운편」이 최치원이 처음 귀국하던 884년에 고운이 지어준 시가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그러하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 먼저 최치원이 처음 신라로 돌아가는 것인데, 또 혹은 다시라는 의미의 ‘(우)又’란 시어가 과연 적절한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 「고운편」이 첫 번째 귀국할 때 지어준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면,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수록된 또 다른 고운의 송별시 「유선가」와는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도 의문이다. 즉, 고운이 두 편의 송별시를 지어준 것인지, 아니면 「유선가」와 「고운편」이 본래는 한 편의 시였던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인로는 『파한집』에서 “공이 또한 자술하여 말했다. ‘무협의 겹쳐진 봉우리의 나이(12세)에 미미한 몸으로 중화에 들어가고, 은하수가 펼쳐진 별자리의 나이(28세)에 비단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라며 이것을 「고운편」에 대한 답시로 보고 있지만, 이규보는 『백운소설』에서 이를 「유선가」에 대한 답시로 기록하고 있다.¹⁸⁾ 그렇다면 이것이 「유선가」의

16) 본래 『파한집』의 원문은 ‘自敍’인데, 이종문은 자신의 논문에서 ‘自序’라고 적고 있기에 이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17) 이종문, 「최치원 연구(1) - 그의 재입당 여부와 한시작품의 창작 시기에 관한 고찰」, 『한문교육연구』 제1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9, pp. 221-222, 각주12).

18) 及將還本國, 同年顧雲贈儒仙歌, 其略曰: “十二乘船過海來, 文章感動中華國.” 其自敍云: “巫峽重峯之歲, 絲入中華. 銀河列宿之年, 錦還東國.”: 李奎報, 「白雲小說」, 洪萬宗編撰, 『詩話叢林』, 아세아문화사, 1973, pp. 11-14.

답시인지 아니면 「고운편」의 답시인지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두 편의 송별시를 차라리 한 편의 시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학자 진상군(陳尙君)은 “「고운편」은 『삼국사기』에 수록된 「유선가」 중의 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¹⁹⁾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서거정 역시 『필원잡기』에서 이 답시를 인용하고 있지만, 그는 이를 최치원의 자술이 아니라 어떠한 이가 준 글이라 하고 있다.²⁰⁾ 이는 아마도 서거정 그 자신도 이 글이 최치원의 글이라는 확신이 없었거나, 아니면 혹 그 어떤 근거에 의해 최치원의 글이 아닌 어떠한 이가 준 글이라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답시의 진위 여부 자체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만일 「고운편」을 최치원이 첫 번째 귀국(884년) 할 때 받은 송별시라고 한다면, 이는 진상군(陳尙君)의 견해대로 원래 한 편의 시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이 두 편의 송별시가 원래 한 편의 시였다고 가정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유선가」의 경우 이를 기록한 문헌들 모두가 ‘대략 이러하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어 그 온전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없는데다가 시도 부(賦) 같은 형식을 하고 있다. 반면, 「고운편」은 온전한 오언절구의 형식을 하고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한 한 편의 시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과연 이 두 편의 시를 본래는 한 편의 시였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들이 본래 한 편의 시였다고 한다면, 그 중 하나가 위작이라고 밝혀질 경우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 역시 위작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요컨대, 현재까지 「고운편」을 고운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논자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최치원이 첫 번째 귀국할 때 지어준 것이

19) 陳尙君輯校(中), 앞의 책, p. 1192.

20) 唐學士顧雲送崔致遠還鄉詩, 有“十二乘舟渡海來, 文章感動中華國”之語. 又有贈言者曰: “巫峽重峯之歲, 絲入中華. 銀河列宿之年, 錦還東國.” 蓋十二而入唐, 二十八而東還也.: 徐居正, 『筆苑雜記』, 韓國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 6.

냐 아니면 두 번째 귀국할 때 지어준 것이냐의 견해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시를 최치원이 첫 번째 귀국할 때 지어준 것이라고 보기에 는 여러모로 무리가 따르기에, 아직까지는 이를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3.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분석 고찰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는 「고운편」이 고운의 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입당 시기가 고운의 사망 후라면 자연스레 이 시를 고운의 시로 인정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잖은 연구자들이 먼저 「고운편」을 고운의 시로 확신한 이후 이를 통해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를 단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그렇다면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에 대해 기타 선행연구자들은 어떻게 고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영성은 최치원이 하정사로 임명되었던 진성여왕 7년(893)에 본래의 예정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그 해 연말쯤에 당으로 들어가 이듬해 2월 시무책을 올리기 전에 돌아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893년 완성되었다고 본 「지증대사비명(智證大師碑銘)」에 기록된 직함 ‘입조하정 겸 영봉황화등사, 전조 청대부 수병부시랑(入朝賀正兼迎奉皇花等使, 前朝請大夫守兵部侍郎)’을 제시하였다. 다만 최치원이 893년 본래의 예정대로 하정사로 재입당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직함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먼저 이 비명을 완성한 후 893년 말에 하정사로 당에 다녀왔을 것으로 파악하였다.²¹⁾ 적잖은 선행 연구자들이 「고

21) 최영성, 앞의 논문, pp. 230-231.

운편」만을 가지고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 그 시기를 추정한 것에 반해 최영성은 한결음 더 나아가 「지증대사비명」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893년 하정사로 임명받았지만 도적이 횡행하여 길이 막혀 당에 가지 못했다가 먼저 「지증대사비명」을 완성한 후 그 해 연말 당에 들어갔으며, 하정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894년 2월에 시무책을 올렸다’는 것인데 그 일들이 과연 몇 개월 사이에 모두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신라 사신이 정상적인 여행을 계속할 경우에 장안에 도착하는데 산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3개월 정도이며 평상시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6개월이 다소 넘는다”²²⁾고 하는데, 연말에 당으로 건너가 하정사 임무를 완수하고 당에서 새해를 맞은 후 귀국길에 오르기도 과연 2월에 신라에 도착하여 시무책을 올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김영화(金榮華)는 「상태사시중장(上太師侍中狀)」 중의 ‘태사시중’이 누구인가를 고찰하며 ‘최치원이 재입당하여 이 글을 올린 대상은 바로 당시의 회남절도부대사 양행밀(揚行密)이며,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는 천복(天復) 2년(902)이나 3년(903)이고 그 장소는 회남’이라고 고증하였다.²³⁾ 그리고 변문례(樊文禮)·양태제(梁太濟) 역시 최영성처럼 「지증대사비명」을 재입당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들은 최치원이 이 비명을 898년 이후 집필하기 시작하여 906년 즈음에 탈고한 것으로 본다. 거기에 덧붙여 「상태사시중장」의 내용을 근거로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는 천우(天佑) 원년(904)부터 당이 멸망한 천우 4년(907) 사이이며, 장소는 양절(兩浙)이고, ‘태사시중’은 당시의 절서절도사(浙西節度使) 전류(錢鏐)라고 고증하였다.²⁴⁾ 반면 이시인(李時人)은 “최치원이

22) 이종문, 앞의 논문, p. 224.

23) 金榮華(中), 「崔致遠在唐事蹟考」, 『中韓交通史事論叢』, 臺北 福記文化圖書有限公司, 1985, pp. 3-45.

이 비명을 언제 쓴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최치원이 언제 이 관직을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명을 받들어 당에 사신으로 갈 때도 이 관직명이었을 것이다. 최치원이 두 번째로 입당한 것은 진성여왕 7년(893) 그를 입조 하정사로 불렀으나 길이 막혀 가지 못한 뒤이거나, 효공왕 2년(898) 면직되고 나서 그 후 다시 부름을 받고 당에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 그의 「상태사시증장」이 이를 증명해준다”며 최치원이 ‘당 왕조 멸망의 전야’에 재입당 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²⁵⁾

이처럼 적잖은 연구자들이 「고운편」 말고도 「지증대사비명」이나 「상태사시증장」 등과 같은 최치원의 저술을 근거로 그 재입당 시기를 고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운편」만을 그 근거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논리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 하지만 「지증대사비명」은 최치원이 하정사로 임명받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줄 뿐 재입당 사실여부나 그 시기에 대한 확실한 단서를 제공하지는 못한다.²⁶⁾ 반면 「상태사시증장」은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을 확인시켜 주며 그 대략적인 시기를 가늠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논자들마다 그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최치원의 입당시기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본고에서는 적어도 그 시기가 고운의 사망 시기(894년)보다 더 나중이라는 사실 자체에 좀 더 주목한다.

24) 樊文禮·梁太濟(中), 「崔致遠再次踏上唐土의時間和地點」, 『韓國研究』第4輯, 金健人主編, 學苑出版社, 2000年 3月版, pp. 96-109.

25) 李時人(中), 「新羅崔致遠生平著述及其漢文小說<雙女墳記>的創作遺傳」, 『文史』, 2001年 第4輯, 中華書局, pp. 167-168.

26) 최영성은 “하정사에 임명된 사실만으로 ‘입조하정(入朝賀正)’이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봉사(奉使)한 이후 비문을 지어 올리면서 그 직함을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전자의 경우 역시 봉명사신(奉命使臣)이라는 것이 여러 모로 영광스러운 직책이다 보니, 봉사(奉使) 이전에 임명된 사실만으로도 이 비문은 ‘입조하정(入朝賀正)’의 직함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보다 훨씬 이전에도 실함(實銜)이 아닌 가함(借銜)을 사용한 예가 적지 않게 있었다.” (최영성, 앞의 논문, p. 230, 각주34)고 말한다.

이렇듯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는 고운이 생존해 있던 894년 이전이란 견해와 그의 사후인 894년 이후일 것이라는 견해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고운편」 역시 고운의 작품일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둘 모두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곧 그만큼 「고운편」이 위작일 수도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종문은 아예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²⁷⁾ 만일 그의 말대로 최치원이 재입당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고운편」은 결국 최치원이 처음 귀국할 때 고운이 지어준 송별시라고 보는 수밖에 없게 되거나, 혹은 이 시를 더 이상 최치원의 재입당과 관련시킬 수 없게 되므로 「고운편」은 당연히 고운의 작품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고운편」으로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 시기를 단정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최치원의 재입당이 고운의 사후인 894년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의 크기만큼 「고운편」 역시 위작일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4. 「고운편」은 우무릉의 「고운」을 재편집한 위작

아직까지는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만으로 「고운편」의 위작 여부를 단정 짓는 것 역시 그저 유추에 불과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가 「고운편」이 고운의 시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와 거의 동일한 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중만당(中晩唐) 시인 우무릉(于武陵)의 「고운(孤雲)」인데, 이 시는 『전당시』 권595에 수록되어 있다.²⁸⁾ 이 두 편의 시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이종문, 앞의 논문, pp. 217-225.

28) 彭定求等編(中), 『全唐詩』 卷595, 中華書局, 1980, p. 6894.

㉠ 우무릉(于武陵)의 「고운(孤雲)」

南北各萬里	남과 북은 만리나 떨어져 있고,
有雲(一作時)心更閑	구름(시간)의 마음은 더욱 한가하여라.
<u>因風離海上</u>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떠돌아,
<u>伴月到人間</u>	달을 짝하여 인간에 이르렀네.
洛浦少高樹	낙포에는 키 큰 나무가 적고,
長安無舊山	장안에는 옛 산이 없네.
<u>裴回不可駐</u>	배회(徘徊)하며 가히 머물 곳이 없어,
<u>漠漠又空(一作更東)還</u>	막막하게 다시 공허히 (동쪽으로) 돌아가네!

㉡ 고운(顧雲)의 「고운편(孤雲篇)」

因風離海上, 伴月到人間. 徘徊不可住, 漠漠又東還.

우무릉의 「고운」은 ‘과거시험에서 낙방한 후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과 의지할 곳 없이 방랑하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한 시’²⁹⁾이다. 즉, 우무릉은 정치 없이 남북을 방랑하며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자신을 ‘고독한 구름(孤雲)’에 투영시킴으로서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구름은 대개 산이나 나무를 만나 쉬어가는 법인데, ‘장안에는 큰 나무가 적고, 낙포에는 옛 산이 없다’며 자신이 또 다시 막막하게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의 표출이며 당시로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자신을 알아 줄 어딘가를 찾아 또다시 떠나야만 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현실의 처량함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운의 「고운편」에는 앞에서 살펴 본 김중렬의 분석처럼 고독하고 불우했던 최치원의 인생이 잘 표현되어 있다. 다만, 우무릉이 자기 자

29) 張固也(中), 「中晚唐詩人于武陵考」,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48卷 第5期, 2008年 9月, p. 94.

신을 ‘고독한 구름(孤雲)’이라 비유한 것에 반해, 고운은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의 친구 최치원을 ‘고독한 구름(孤雲)’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다. 그리고 ‘막막하게 다시 떠나야 하는’ 대상이 「고운」에서는 우무릉 자신이기에는 이는 처량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의 표현인 반면, 고운의 「고운편」에서는 ‘막막하게 다시 떠나가는’ 대상이 친구 최치원이기에는 이는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운」에서는 ‘장안에는 큰 나무가 적고, 낙포에는 옛 산이 없기에 배회하며 머물 곳이 없어’ 다시 떠난다고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나, 「고운편」에서는 무엇 때문에 배회하며 머물 곳이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 이는 곧 「고운편」의 완성도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우무릉의 「고운」과 고운의 「고운편」 모두 누군가의 고독하고 불우했던 인생을 잘 담아내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시 전체를 보면 ㉠ 고운의 「고운편」은 오언율시인 ㉡ 우무릉의 「고운」 중 함련(3,4연)과 미련(7,8연)만으로 구성된 오언절구임을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물론, ‘배회(裴回)’와 ‘배회(徘徊)’, ‘주(駐)’와 ‘주(住)’의 글자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서로 통하는 글자들이므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혹 마지막 연의 ‘공환(空還)’이 ‘동환(東還)’으로, 혹은 ‘동환(東還)’이 ‘공환(空還)’ 바뀐 것일 수도 있지만, ‘공환’이 ‘동환’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니 그러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느 작품이 시대적으로 더 앞서는가에 따라 「고운편」이 「고운」을 갖고 오언절구로 재편집되었거나, 아니면 「고운」이 「고운편」을 토대로 오언율시로 재창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되었거나 더 후대의 작품이 전대의 작품을 모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편의 시 중 어느 것이 원작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무릉의 「고운」이 원작이라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운편」이 정말

로 고운이 최치원에게 준 송별시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그 두 경우 모두 「고운편」이 우무릉의 「고운」보다 앞 선 시대의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고야(張固也)의 고증에 따르면 우무릉은 당덕종(唐德宗) 정원(貞元) 4년(788)에 출생하여, 당의종(唐宣宗) 대중(大中) 6년(852)에 사망하였다고 한다.³⁰⁾ 반면, 오재경(吳在慶)의 고증에 따르면, 고운은 당의종 대중 5년(851)에 태어났으며,³¹⁾ 사망연대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당소종 건녕 원년(894)이다. 따라서 설령 「고운편」이 진짜로 최치원의 첫 번째 귀국(884년) 때 준 송별시라고 해도 우무릉의 「고운」보다 앞 선 시대의 작품일 수는 없다. 그리고 만일 「고운편」이 진짜로 고운이 최치원에게 준 송별시임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수한 창작품이 아니라 모방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고운편」의 작가를 고운이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청대(清代)에 간행된 『전당시』 권637에 수록된 고운의 시

30) 張固也(中)의 「中晚唐詩人于武陵考」을 중심으로 하여 우무릉이란 인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무릉(于武陵, 788~852) : 경조호현인(京兆鄠縣人). 대략 정원(貞元)4년(788)에 출생하였으며, 원화(元和)연간(806~820)에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오래도록 급제하지 못했다. 그 당시 장안과 낙양을 왕래하며, 당대의 유명 시인 가도(賈島), 무가(無可) 등과 교유하였고, 이들은 곧 만당 양대 시파 중의 하나인 가도시파(賈島詩派)의 초기 구성원이 되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남북을 떠돌며 여러 막부에서 말단 관직 생활을 하였다. 경조부삼원현위(京兆府三原縣尉)를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대중(大中) 6년(852) 약 6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우무릉의 시는, 송대(宋代)까지는 1권 백여 수의 시가 전해졌으나, 지금은 단지 60여 수의 시만 전해지고 있다. 당대(唐代)에는 워낙 수많은 유명 시인들이 배출된 시대인지라, 우무릉을 일류 시인이라고까지 치켜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만당 시대에서는 일정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시인임에는 분명하다. 송대 이후, 우무릉의 생애와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이미 불분명해져, 우무릉의 적잖은 시를 당말오대(唐末五代)의 우업(于鄴, 字武陵)의 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원대(元代) 이후에는 우무릉을 우업과 한 사람으로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에 와 진상군(陳尙君)에 의해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이 시정되었다.

31) 吳在慶(中), 「唐五代作家生卒年考」, 『遼寧大學學報』, 1996年 第5期, pp. 2-3.

8수 중에는 「고운편」이 없는 반면, 권595에 수록된 우무릉의 시 50여 수 중에는 「고운」이 있다는 사실도 이 시가 본래 우무릉의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운편」이 고운의 작품이 아님을 인정한다면 어떠할까? 그렇다고 해도 원작은 여전히 우무릉의 「고운」일 수밖에 없다. 「고운편」이 최초로 수록된 문헌은 이인로의 『파한집』이며 이 문헌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³²⁾

그렇다면 우무릉의 「고운」의 일부가 어찌하여 고운의 「고운편」이란 송별시로 전해지게 된 것일까? 이것은 「고운」이란 시가 누군가의 고독하고 불우한 인생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후대인(그가 이인로이든 혹은 그 이전의 누구이든)이 우무릉의 「고운」을 본 후 이 시의 원작자가 우무릉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 시는 최치원과 절친한 친구였던 고운이 신라로 돌아가는 최치원에게 지어준 것이라고 오해하였을 수도 있다. 혹은 이 시의 제목과 내용을 최치원의 호 ‘고운(孤雲)’이나 최치원의 인생과 상관지은 후, 고운(顧雲)의 이름을 빌려 최치원에게 주는 송별시로 보일 수 있게끔 재편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재편집 혹은 각색을 통해, 본래 과거에 낙방한 후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한 시 「고운」이, 모국으로 돌아가는 절친한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고운편」이란 송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후대인은 왜 「고운편」의 작자를 고운으로 지목했던 것일까? 이것은 최치원과 고운이 무척 각별한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고운을 그 작자로 내세우면 신뢰성이 있어 보여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최치원과 고운은 874년 같은 해에

32) 『전당시』(1707년 간행)가 비록 『파한집』(1260년 간행)보다 훨씬 더 후대에 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존하는 문헌 중 최치원에 대한 최초의 기록 “崔致遠 『四六集』一卷, 又 『桂苑筆耕』二十卷. 高麗人. 賓貢及第, 爲高駢淮南從事”)이 기재되어 있는 『신당서(新唐書)』(1060년 완성) 권60 「예문지4(藝文志四)」에는 “于武陵詩一卷”이라는 기록도 있어 우무릉과 그의 시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당시』에 수록된 그의 시들의 진위여부를 그다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과거에 급제한 동년인데다가 고변막부에서 함께 종사한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라는 사실, 그리고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고운이 최치원에게 지어준 송별시 「유선가」가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 거기다 최치원과 고운이 서로 시를 주고받았음을 알게 하는 최치원의 시 「늦은 봄날 고운에게 즉흥시로 화답하며(暮春卽事和顧雲友使)」와 「고운에 화답하여 중앙절날 국화를 읊으며(和顧雲侍御重陽詠菊)」가 전해진다는 사실 등이 고운을 「고운편」의 작자로 지목하게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고운편」은 고운이 신라로 돌아가는 최치원에게 지어준 송별시가 아니며, 고운이 최치원에게 준 송별시 중에 「고운편」이란 시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5. 결론

현재까지 한중 학계에서는 「고운편」에 대해 『파한집』의 기록대로 최치원이 귀국할 때 절친한 친구 고운이 지어준 송별시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해 왔다. 하지만 필자는 본고에서 「고운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한중 연구자들의 견해와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에 대한 한중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이 시가 위작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만당 시기의 시인 우무릉의 시 「고운」을 근거로 이 시가 고운의 작품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빌린 위작임을 밝혀내었다.

사실 「고운편」은 애초부터 그 진위가 의심되는, 위작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시이다. 왜냐하면 이인로는 이 시를 최치원이 처음 귀국할 때(884년) 고운이 지어준 송별시라며 문헌에 기록하였지만, 만일 그러함을 인정한다면, 시의 내용과 당시 최치원의 정황이 서로 어긋나 그 자체만으로도 이 시의 진위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삼국사기』를 통

해 최치원이 884년 귀국할 당시 고운이 지어주었다고 하는 송별시 「유선가」가 전해지고 있어 고운이 과연 당시에 최치원에게 두 편의 송별시를 지어 준 것인지 아니면 이 둘이 원래는 한 편의 시였던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를 최치원의 첫 번째 귀국이 아니라, 최치원이 하정사로 재입당 했었다는 사실과 관련짓고 있는 것이며, 거기서 더 나아가 최치원이 고운 생전(894년)에 재입당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역으로 만일 최치원이 재입당한 시기가 고운의 사망 후라면 「고운편」은 당연히 고운의 시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진위 여부가 의심받게 된다. 게다가 최치원의 재입당시기에 대해, 혹자는 고운이 사망하기 전이라 하고 혹자는 사망한 후라고 하는데, 어느 견해가 더 정확한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운편」이 고운의 작품이 아닐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운(851~894)의 「고운편」은 우무릉(788~852)의 오언율시 「고운」의 함련과 미련을 그대로 옮겨 오언절구로 재편집한 시라는 점에서 위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고운편」은 고운의 작품이 아닐뿐더러, 기껏해야 최치원의 절친한 친구였던 고운의 이름을 빌려 「고운」이란 작품을 갖고 재편집한 모방작에 불과하므로, 고운이 최치원에게 준 송별시 중에 「고운편」이란 시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인로의 『파한집』 소재 「고운편」은 최치원이 재입당한 사실과 그 시기를 증명하는 단서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최치원의 생애를 고찰하거나 논증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다.

참고문헌

[한국]

- 金富軾著, 金鍾權譯(1988), 『三國史記』, 明文堂.
- 李仁老(1986), 『破閑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편, 『高麗明顯集』 第二冊.
- 李奎報(1973), 『白雲小說』, 洪萬宗編撰, 『詩話叢林』, 아세아문화사.
- 徐居正, 『筆苑雜記』, 韓國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 김중렬(1983), 『최치원 문학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운(1996), 『고운 최치원의 사상과 역사인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구의(2005), 『최고운 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 최영성(1998), 『최고운 사상 형성의 역정에 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10집, 211~266.
- 이종문(1999), 『최치원연구(1) - 그의 재입당 여부와 한시작품의 창작 시기에 관한 고찰 -』, 『한문교육연구』 제1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15-235.
- 이재운(2001), 『고운의 생애와 정치활동』, 한국사학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편,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연구』, 주류성, 27-78.
- 박병선(2003), 『당대 한중 문인의 교류에 관한 연구 - 동국문중 최치원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46호, 441-469.

[중국]

- (清) 徐松撰(1984版), 『登科記考』 卷23, 중국: 中華書局.
- (清) 彭定求等編(1980版), 『全唐詩』 卷595, 중국: 中華書局.
- 陳尚君輯校(1992版), 『全唐詩補編』, 중국: 中華書局.
- 謝海平(1981), 『唐代詩人與在華外國人之文字交』, 대만: 文史哲出版社.
- 韋旭升(1986), 『朝鮮文學史』, 중국: 北京大學出版社.
- 党銀平(2007), 『唐與新羅文化關係研究』, 중국: 中華書局.
- 方曉偉(2007), 『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 중국: 廣陵書社.

- 姜昌求(2008), 『新羅人與唐代人的贈詩研究』, 중국: 南京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金榮華(1985), 「崔致遠在唐事蹟考」, 『中韓交通史事論叢』, 대만: 臺北 福記文化圖書有限公司, 3-45.
- 吳在慶(1996), 「唐五代作家生卒年考」, 『遼寧大學學報』, 1996年 第5期(總第141期), 1-4.
- 樊文禮·梁太濟(2000), 「崔致遠再次踏上唐土的時間和地點」, 金健人主編, 『韓國研究』第4輯, 중국: 學苑出版社, 2000年 3月, 96-109.
- 李時人(2001), 「新羅崔致遠生平著述及其漢文小說<雙女墳記>의創作遺傳」, 『文史』, 2001年 第4輯(總第57輯), 중국: 中華書局, 159-180.
- 張固也(2008), 「中晚唐詩人于武陵考」,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48卷 第5期, 91-98.

원고 접수일: 2011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1년 5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26일

顾云赠崔致远的诗《孤云篇》真伪考辨

- 兼谈中韩研究史中关于《孤云篇》和崔致远再入唐时间的论及 -

李 黄 振

据传,《孤云篇》是崔致返回新罗之时,他的挚友顾云为他所作的赠别诗。这首诗收录在李仁老的《破闲集》中,并流传至今。一直以来,对于这首诗为顾云所作这一点,中韩学界深信不疑,也未提出过任何异议。但是,综合分析中韩学者对《孤云篇》的具体解析以及他们对崔致远再入唐的时间的看法,就不难发现这首诗存在是伪作的可能性。即,不少研究者将《孤云篇》作为依据,认定崔致远再入唐的时间是在顾云生前(894年),但另一方面,在对崔致远的再入唐时间进行考证的研究者中,有不少人认为是在顾云死后,因此《孤云篇》究竟是否果真出自于顾云之手,在作品的真伪问题上仍存在不少疑点。而且最能说明问题的是,顾云(851~894)的《孤云篇》是截取了于武陵(788~852)的五言律诗《孤云》的颔联和尾联,经过拼凑和再编辑而成的一首五言绝句诗,由这一点可证实该诗为一篇伪作。简而言之,《孤云篇》并非顾云所作,只不过是盗用崔致远的挚友顾云的名字,将于武陵的作品《孤云》进行再编辑而成的一篇伪作,顾云送崔致远的所谓赠别诗《孤云篇》从一开始就是子虚乌有。因此,不能将李仁老《破闲集》中所载的《孤云篇》作为考证崔致远再如入唐的这一事实及其时间的线索或根据,亦不能当作考究,论证崔致远生平的任何根据。